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 정혜영 의원)

의 안 번 호	2867

발의연월일 : 2024. 3. 21.

발 의 자 : 정혜영, 강성삼, 정병용, 최훈종, 오승철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되었으나,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의 3개 자치단체로 분리·개발되어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나. 따라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례신도시 통합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함.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한민국 국회, 서울특별시장, 하남시장

4. **결의문(건의문)** : 붙임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문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단일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위례신도시 통합을 촉구한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되었으나,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의 3개 자치단체로 분리·개발되어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동일 생활권역인 하남, 성남, 서울의 버스는 각각 다르게 운행되어, 서울의 시내버스는 하남과 성남지역으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버스 이용이 어려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위례신사선의 경우 교통개선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서울지역만 설계에 반영돼 하남 위례지역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격차에 고통받고 있다.

이외에도 하남 위례지역 학생들은 집 근처에 서울 소재 학교가 있지만, 행정구역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하남 원도심으로 통학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이 달라 발전이 불균형하고, 행정구역에 따라 문화행사나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지역 공동체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위례신도시를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가 통합되면 행정효율성과 정책일관성이 높아져 주민들의 민원 처리가 빠르고 편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일 생활권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통합의 의미를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이 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가 3개의 자치단체로 나뉘어 개발이 추진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행정적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한다.

2024년 3월 22일

하 남 시 의 회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의원